

Artist's Statement

김인식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 또한 서울에서 보냈다. 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었지만 비교적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늘 산과 강과 하늘을 눈에 담으며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서울도 급속도로 변화해 갔는데 이곳저곳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그런 건물들에 가려져 산은 물론 하늘조차 잘 보이지 않는 도시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내가 눈에 담고 기억해온 산과 강과 하늘은 점차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

유학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작업했던 일본 교토는 호수와 강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집에서는 창밖으로 항상 푸른 하늘과 산의 능선이 보이는 자연이 풍부한 곳이었다. 자연을 접하게 되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그 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름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연은 잊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었는데,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과거 서울의 정경들을 교토라는 타지에서 다시 회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기억」을 주제로 연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한 종류의 소지에 안료를 첨가하여 작업하는 일반적인 연리문 기법과는 달리 서로 다른 성질의 백색 소지만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그것을 「백연리」라 한다. 서로 다른 소지로의 작업은 접한 부분이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찢어지는 등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를 달리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소성 후 소지 고유의 질감과 색깔, 그리고 작품의 표정이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같은 백색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백색의 흠들을 물레 위에서 한 단씩 쌓아 올려가고, 쌓여가는 흠은 마치 나의 과거로부터의 기억들처럼 축적되어가는데, 이러한 기억은 서로 맞물리고, 겹쳐지고, 뒤얹혀있다가 깎여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다양한 표정들로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드러난 표정들은 마치 산수화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형성된 선과 면,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흠의 움직임과 뒤틀림, 손으로 느껴지는 질감은 내가 눈에 담아왔던 과거의 공간과 장면을 회상하게 해주는 요소들과 닮아있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현된 기억의 흔적들을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연리라는 장식기법을 통해 기(器)로 표현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살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감정과 기억을 남긴다.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찰나의 과거가 되고, 과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도, 돌아갈 수도 없게 된다. 결국 과거로부터 얻어진 경험과 감정은 기억이란 형태로 남게 되는데, 기억은 우리의 삶에 있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기억으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일본에서의 기억을 작업에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며 눈에 담았던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음에도 그곳에서의 감정이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이 안타깝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나의 인생에 있어, 나의 작업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그곳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백색의 기(器)에 그곳에서의 기억을 담아내고 있다.